

상생발전 · 우수 향토기업 모집

전주시, 20일까지 신청 접수... 경영개선보조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지원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소한 기업들을 선정해 경영개선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상생발전기업 3곳과 우수 향토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상생발전기업 선정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 발굴·격려함으로써 타 기업의 모범으로 삼아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 기획했다.

모집 대상은 전주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액 30억원,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분야별로 최우수업체 3곳을 선정해 상생발전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경영개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선정 기업에 대한 홍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희망기업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수소경제탄소산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yeonghwa@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수소경제탄소산업과(063-281-2722)로 문의할 수 있다.

시는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해오며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튼튼히 떠받쳐온 우수 향토기업 10곳을 선정한다. 모집 대상은 10년 이상 전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시는 선정 기업에 5년간 우수 향토기업임을 인증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최대 3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상담회와 해외박람회, 해외지사화 등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기업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삼신기업 등 23개 업체를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

상생발전기업과 우수 향토기업 선정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고용창출, 성장 잠재력, 근로자 진화환경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대로 다음 달 선정될 예정이다.

전주시 신성장정책국 관계자는 "지역민 고용과 지역물품 구입에 앞장서 온 상생발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수 향토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세계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 종합대책 내달 13일까지 추진

전주시, 한시적으로 50ℓ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 담아 배출 허용

전주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일반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김장철 기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평상시(228톤/일)보다 하루 평균 34톤(15%) 증가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과정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50

ℓ짜리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수거용기가 부족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나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50ℓ)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100ℓ짜리 소각용 봉투 등 다른 봉투는 수거 대상이 아니다.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마대자투와 노끈, 양파망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고장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배추쓰레

기는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고, 마늘대과 고추꼭지 등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시는 홍보 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게시, 공동주택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한 방침이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동 처리반을 꾸려 농수산물 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원의 경우 생산자가 되거나 가도류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마을버스 '바로운' 무료 시범운영 후 정상화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운'이 14일부터 무료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당초 이날부터 본격 운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후 정상 운영된다.

마을버스의 운행 노선과 운행시간은 변동이 없다. 다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환승이 불가능해졌다. 시내버스 탑승 시 1250원(성인, 카드 이용 시)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마을버스 도입과 함께 추진하려 했던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마을버스 정상운영 시점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어서 시내버스 노선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시내버스 업체들은 마을버스 도입 노선에 대한 노선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도 거부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업체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마을버스 시범운영을 끝내고 당초 계획대로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취약지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도입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유감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진에 담은 자전거와 함께하는 전주 매력

시, '자전거도시 전주, 사진공모전' 21명 수상자 선정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매력을 담은 자전거 사진 21점이 선정됐다.

전주시는 '2020 자전거도시 전주, 사진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자 채원석 씨 등 2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전거와 함께하는 전주의 매력을 사진으로 마음껏 표현하고 자전거 이용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총 44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공모전 출품작을 대상으로 홍보 활용성, 주제 적합성, 소재 상

징성, 사진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전주의 자전거 길과 자전거 명소 등을 아름답게 표현해낸 작품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대상 수상자로는 '자전거로 느끼는 가을'을 표현한 채원석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최종호, 박윤준 씨가, 장려상은 이관영, 김무너, 박선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 외 15명이 입선으로 뽑혔다.

시는 수상자를 개별 통보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입선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 채원석 씨 작품

시는 공모전 수상자를 내년 자전거 대행진 행사 시 전시하고 시청 로비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친환경 생태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홍보하고 또 공공저작물로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 '무장애 관광지'로 만든다

시, '장애인 동행 투어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자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 개선

전주한옥마을이 장애인·고령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된다.

전주시는 지난 10~13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과 보호자, 문화해설사, 전담여행사 등 90여 명이 함께하는 장애인 동행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주시는 지난 10~13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과 보호자, 문화해설사, 전담여행사 등 90여 명이 함께하는 장애인 동행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관광객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한옥마을을 무장애 관광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전주명품관, 경기전, 전통성당, 종남문, 남부시장, 향교, 한백당, 생태박물관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4개 코스로 나눠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한옥마을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태조로, 은행로 등 주요 동선 보행로를 걷기 편한 환경으로 개선했다. 시각장애인 및 약시를 위한 촉지·음성 종합관광 안내판이 설치됐고,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의 장애인 화장실과

수유실 환경도 정비됐다.

시는 이번 동행 투어 프로그램을 토대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에 장애인 등과 한 동행 투어 프

로그램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의 관광 환경을 개선해 관광객도시 전주의 열린 관광지 이미지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발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지원 위해 규제 개선

산림청은 최근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홍보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으로 추

정되는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유해발굴이 규제에 막혀 곤란한 것을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광업법상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 및 6.25 전사자 유해조사 발굴행위가 제한, 6.25

전사자 유해발굴 행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를 개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창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행위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적 의지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